

# 목포에 전국 최초 마른김 거래소 들어선다

### 수산식품수출단지 부지에 1300㎡ 규모 조성... 오는 2026년 개소 목표

목포시가 전국 최초의 마른김 거래소를 오는 2026년 개소를 목표로 추진한다.

목포시는 최근 목포시청에서 '마른김 거래소 운영방안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마른김 거래소는 해양수산부와 전라남도의 지원을 받아 목포시가 추진 중인 수산식품수출단지 부지 내에 1300㎡ 규모로 조성된다.

목포시의 수산식품수출단지가 오는 2025년 하반기 준공될 예정으로 있어, 마른김 거래소는 2026년부터는 본격 운영될 것으로 목포시는 내다보고 있다. 이 곳에는 마른김 거래



소, 마른김 검사소, 국제회의실 등이 들어선다.

마른김 거래소가 운영되면 유통

효율성이 제고되고, 가격이 투명하게 형성될 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마른김이 온·오프라인 플랫폼에서 활

발하게 거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마른김 거래소 도입은 목포시가 추진 중인 김산업 특화단지 육성과 연계된 사업이다.

시는 이를 위해 ▲김산업 전문기관 지정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수산물 김 박람회 개최 등을 추진 중이다.

시는 지난 21일 목포수산물지원센터가 해양수산부로부터 전국 최초 김산업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김산업 특화단지 육성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홍률 시장은 "전국 최초의 마른김 거래소를 조성해 김산업 특화단지를 육성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김산업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겠다"고 밝혔다. /목포=김근호 기자

# 무안, 249개 전체 마을 'CCTV' 설치

### 내년부터 4년간 19억 투입... 범죄예방환경 조성

무안군은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범죄예방환경 조성을 위해 '마을안심 CC-TV'를 전체 마을에 확대·설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1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49개 마을에 향후 4년간 연차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올 해에는 특별교부세 6억원을 확보하고, 내년 상반기 75개 마을을 시작으로 민선 8기 내 전체 마을에 CC-TV 설치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마을안심 CC-TV'는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 24시간 상시관제가 이뤄진다.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빈집털이, 농산물 절도, 노약자를 상대로 한 각종 범죄로부터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고 안전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김산 군수는 "이번 마을안심 CC-

TV 설치사업을 통해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재난 등을 사전 예방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4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무안군 CCTV통합관제센터에는 관제요원 20명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다.

이 곳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놀이터, 도시공원 등에 설치된 1142대의 CC-TV를 실시간 관제하면서 주민이 안전한 무안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그동안 528건의 관제 실적과 626건의 영상제보를 통해 무안군 관내 범죄발생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범인 검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무안=백태연 기자

# 완도 '해맞이 행사' 취소

### 군민·관광객 안전 중시

완도군은 내년 1월 1일 다도해일출공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청정완도 해맞이 행사'를 취소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21년 이후 3년째 취소하는 것이다.

완도군은 코로나19 재유행 상황과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우려해 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맞이 행사는 취소했지만 다도해일출공원을 찾는 관광객 등의 안전을 위해 완도군은 일출공원 일대에 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완도타워와 다도해일출공원은 개방하되 응급·소방·경찰 등 안전 요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또 안전상 위험이 있는 봉수대와 일출공원 화장실 뒤 잔디밭 일대는 폐쇄하고 완도타워에 대해서는 입장 인원을 제한한다.

완도군 관계자는 "해맞이 행사는 취소하지만 다도해일출공원에서 군민과 관광객이 새해 소망을 기원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이두식 기자

# 강진 특별교부세 70억원 확보... 역대 최대 규모

### 대구면 백사마을 세월교 정비 등 사업 '탄력'

강진군은 올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70억 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에 확보한 62억 원에 비해 8억 원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군은 이번 3차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사업은 대구면 백사마을 세월교 정비사업(1억 원)과 군도 3호선 확·포장 공사(6억 원) 등이다.

대구면 세월교 정비사업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저지대 주택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군은 확보한 특별교부세로 무명 잠수교를 재가설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계획이다.

군도 3호선 확포장 공사는 강진읍 학명리부터 도암 만덕리까지 구간으로, 전남 인재개발원 개원에 따른 교육생 및 관계자 등 교통 수요에 필요

한 도로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특별교부세 추가 확보로 재해·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 현안 사업 해결에 탄력을 받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군민 수혜성이 높은 현안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누구든 만나고 어디든 찾아가며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 특별교부세 사업에는 대구면 대구천 정비사업이 선정되어 1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강진=한홍수 기자

# 신안, 내년 국도비 예산 4200억 원 확보 '사상 최대'

### 국립 갯벌 세계유산 보전본부 건립 등 갯벌 산업 본격 추진

신안군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 정부예산과 함께 2023년 국도비 주요 현안사업비를 2022년보다 800억여원이 많은 4200억 원을 확보하여 사상 최대의 국도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정부예산에 미반영된 국립 갯벌 세계유산 보전본부 건립사업의 2건(총사업비 850억원, '23년 국비 35억 원)이 국회 심의에서 추가로 반영되어 신안이 갯벌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했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주요 국책사업으로 ▲비금-암태

연도교 건설 236억 원 ▲국도77호선(신장-북동) 시설개량 123억 원 ▲국도 2호선(압해-송공) 시설개량 54억 원 ▲흑산공항 건설사업 71억 원 등 교통SOC사업과 ▲가거도항 복구공사 226억 원 ▲흑산도항 개발사업 76억 원 ▲영산강IV지구 4-2공구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320억 원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40억 원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 10억 원 등 항만 및 농수산개발사업이 있다.

일반국비 주요사업으로 ▲신안 북부권역 갯벌식생조립 29억 원 ▲암태~추포도 갯벌복원사업 13억 원 등 갯벌보전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어촌뉴딜300사업 193억 원 ▲천일염 산업육성 24억원 ▲매수개선사업 42억 원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공사 36억 원 ▲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120억 원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많은 예산이 확보됐다. 이와 함께 2023년도 군특회계 예산으로 365억 원을 확보하고, 지방이양 전환사업비 390억 원과 인구소멸대응 기금 120억 원을 확보해 관광 활성화 및 다양한 소득사업을 통해 인구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군민 모두가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안=백태연 기자

# 진도,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우수기관' 2관왕

### 모바일 헬스케어·AI·IoT 어르신 건강관리 부문

진도군이 보건복지부의 '2022년 지자체 건강증진사업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성과대회'에서 모바일 헬스케어 등 2개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2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주관으로 최근 열린 성과대회에서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평가 결과 각각 우수기관에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전국 258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는 코로나19 지속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기술 활용 건강

증진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 한 보건기관을 찾아 시상하는 평가이다.

군은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활동량계, 체중계 등 스마트 건강관리기기를 지원했고 기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모바일 헬스케어는 만성질환에 방이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APP)을 통해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보건소 전문가들이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했다. /진도=백태연 기자

# 해남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26종 선정

해남군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앞두고 기부자에게 주어질 답례품을 확정했다.

해남군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지역의 특색을 담은 농수축산물과 공예품 등 26종, 공급업체로 35곳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답례품은 해남군이 자랑하는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 공예품을 비롯해 해남사랑상품권과 해남미소상

품권, 해남관광상품권, 케이블카 탑승권 등 유가증권을 포함해 구성했다.

군은 답례품 발굴을 위해 품목에 제한없이 참가업체를 공개모집했으며, 최종 답례품 및 공급업체를 해남군답례품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답례품과 공급업체는 농수축산물 14개 업체, 공예품 2개 업체, 유가증권 4개 업체 등이다. /해남=김동주 기자

기사제보 062)363-8800

호남매일 디지털신문

**황토갯벌에서 자라는 농수산물**

양파, 낙지, 고구마, 송어 등 자연의 보고... 황토로 무안

무안군